

“총선 승패 가른다”... 오늘·내일 사전투표율 ‘촉각’



광주 96곳·전남 298곳 투표 실시
정당·후보들 “한표라도 더” 독려
민주 “윤석열 심판 사전 준비의 날”
국힘 “민주 일당독점 구도 깨트려야”
투표율·비례대표 표심 향방 등 주목

4·10 총선의 민심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첫 관문인 사전투표가 5일과 6일 이틀간 실시된다.

재외선거에서 62.8%라는 사상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사전투표 참여 열기 또한 역대급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여·야 각 정당과 후보들은 사전투표가 최종 득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5일과 6일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지역내 사전투표소는 각 읍·면·동별로 1곳씩 광주 96곳, 전남 298곳이다.

이번 4·10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막판 당락을 가를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사전투표의 투표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각 정당들은 사전투표 참여 독려에 공을 들이면서도 최종 총선 결과

에 미칠 유불리 셈법을 따지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총선의 경우 전국 접전지 50~60여곳의 핵심 지지층 투표 참여가 승패를 좌우하고, 비례대표 선출 역시 유권자의 한 표가 당락을 가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이날 광주·전남지역 여·야 주요 정당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사전투표부터 투표율을 끌어올려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내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광주지역 후보들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2년, 잠 깨보니 후진국이다. 경제는 추락하고 민생은 파탄났다”며 “사전투표는 윤 정권 심판 사전 준비의 날”이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광주시민의 선택이 민주당 혁신공천 바람을 이끌어 냈다”며 “그 바람이 서울에서, 충청에서, 그리고 부·울·경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전략본부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여전히 선거 판세는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1표 승부’라면서 “투표율이 총선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투표율이 65% 이상이면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투표장으로 나와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광주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일당독점 구도를 깨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광주지역 후보자들은 “유권자의 선택이 기이하게도 한 곳으로만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난 결과 광주의 성장은 멈췄다”며 “이번 총선에서 정당을 떠나 어떤 후보가 광주 발전을 견인해 낼 인물이 될지 한 번 더 숙고해서 투표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2면에 계속
▶ 관련기사 4면 김은지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광주 북구 용봉동 사전투표소(전남대 컨벤션홀)에서 용봉동투표관리관들이 기표소와 투표함 설치 후 불법 촬영 탐지 카드를 이용해 카메라 설치 유무를 점검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광주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나섰다

복지부, 치의학 컨트롤타워 역할
치과의사회·대학·병원·기업 참여

광주시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본격 나섰다.

광주시는 4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유치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보건복지부가 치의학 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표준화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 보급·확산, 치의학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 등을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근거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보건복지부가 사전 타당성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면서 설립이 가시화됐다.

실무협의체는 광주시, 광주시치과의사회, 지역 치과 관련 대학(원)·병원·기업

관계자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양한 치과산업 인프라와 디지털 전환 편의성 등을 앞세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타당성 논리 개발, 타 지자체 비교 경쟁력 분석, 지역 특화 전략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 지자체 중 처음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유관기관 업무협약,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연구 용역, 심포지엄 및 포럼 개최, 근거 법률 발의 등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 또 2002년 ‘타이타늄특수합금부품개발 지원센터 구축사업’, 2017년 ‘치과용소재 부품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2023년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소재부품산업 고도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치과용 소재부품 중심 치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이 밖에 광주지역에는 전국 11개 치과대학 중 전남대, 조선대 등 2개가 있어 우수인력이 풍부하고 신속한 병원 연계 임상지원 등이 가능하다. 연구기관, 기업 등이 집적화돼 연구개발(R&D), 창업·인재 양성이 용이한 것도 강점이다.

광주시는 의료기술 발달로 치의학 분야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국가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가 치의학 분야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미래 치과산업을 선도할 우수한 인력과 인공지능 인프라가 구축된 광주시가 최적의 입지다”며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광주사람들 (602/1000)

이경은
광주시 음악협회 회장

▶ 관련기사 16면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Yes & True balanced

밸런스 라인

PERON 엑스페론